나는 아직도 꿈꾸고 있다

시니어 주영광 3목장

함 운옥 권사

매월 첫 주면 어김없이 나오는 지구촌 비전인데 7월호는 그 긴 더위만큼이나 기다림이 지루하게 느껴졌다. 긴 기다림 끝에 7월호가 나왔다. 전에는 첫 페이지 설교 말씀부터 읽었지만 오늘은 맨 뒷장부터 펼쳐보았다. ‘분명히 답은 맞았는데..’ 아쉬웠다.

섭섭함을 잊고 7월호 말씀 퍼즐에 답을 쓰려고 학창시절 시험 공부 하듯 말씀을 읽고 또 읽었다. 노트에 정답이 있지만 노트를 덮고 답을 써서 다시 응모했다.

나의 보물 1호 ‘설교노트’

주일이면 설교 말씀을 주보에 메모하여 모아두었다가 버리고 또 버리고 하다 어느 날 생각해보니 너무 아까웠다.

이 동원 원로 목사님의 그 은혜의 말씀, 주옥 같은 생명의 말씀에 빠져서 내가 구원 받았고 서울에서 분당을 10년 넘게 다니지 않았던가. 그 귀한 말씀을 버리다니… 정신이 번쩍 들어 2010년부터는 다이어리에 한편에는 그 주일의 성경 본문 말씀을, 다른 한편에는 설교 말씀을 받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계속되어오고 있다.

‘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’ (빌2:13)

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. 하나님을 성령을 부으시고 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.(인생여행 p44)

나는 연필을 잡을 수 있는 힘을 주실 때까지 설교 말씀을 계속 쓸 것과 4년전 시작한 그림 그리기를 놓지 않겠다고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. 작은 나의 꿈이지만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다. 나의 약한 의지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다.

나이가 들어 가면서 가끔 잠을 못 이룰 때면 연도 별로 한 권씩 꺼내서 볼 때 더 새롭고 은혜로우며 과연 내 삶에 얼마나 적용하며 살아왔나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하며 그 때의 추억도 더듬어 보곤 한다.

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“운옥아 너 참 잘하고 있어” 하시며 칭찬하시는 것 같아 혼자 빙그레 웃다가 잠이 들기도 한다.

또 한 달의 기다림 속에 8월호가 나왔다. 떨리는 마음으로 뒷장을 펼치는 순간! 당첨! 꿈만 같았다. 진 재혁 담임목사님이 친필로 싸인하신 저서,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상이다.며칠 후 도착한 상은 담임 목사님 저서 ‘인생 여행’이었다. 어쩌면 이럴 수가.. 이 책은 목사님이 싸인회 하시던 날 두 권을 구입했었다.

꼭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이 두 사람 있어 그 날로 한 권을 다 읽고 한 권은 우리 공장 직원인 다문화(필리핀) 가정의 아들 졸업 선물로 또 한 권은 지적 장애 아들을 둔 직원에게 선물로 주었다. 급히 읽고 두 권을 다 주다 보니 시간이 흘러 내용이 기억에 희미해져서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었는데…

내 마음을 이토록 잘 아시는 아버지 마음에 또 한번 놀라왔다.

이미 상은 받았지만 나는 설교 말씀 퍼즐을 계속 보내고 있다. 퍼즐의 답을 풀어가는 순간 순간 그 기쁨의 은혜는 나 77세 할머니를 꿈 많은 소녀로 만들어 주신다.

‘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특별한 존재다’ (인생여행 P38)

나에게 꿈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